

## 우리의 구체적인 환경과 실정에 맞게

2018년 7월 어느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감자가루와 여러가지 감자가공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표준공장을 설립한 경험과 설계에 기초하여 북부고산지대의 감자 생산지들에도 현대적인 감자가루생산공장들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공장에 새로 설치한 우리 식의 순환비등충보이러를 돌아보시였다.

보이러의 가동상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의 설계와 기술, 우리의 로력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건설한 순환비등충보이러에서 적은 석탄으로 생산공정에 필요한 증기를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평가의 말씀에 일군들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것은 공장건설초기 기술신비주의에 빠져 경제타산이 맞지 않는 설비를 차려놓고 생산에 지장을 준 일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졌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아무리 첨단기술을 받아들인 현대화된 설비라고 하여도 우리 나라 형편과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낭패를 볼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첨단기술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자력의 원칙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환경과 실정에 맞게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다시금 새기게 되였다.